

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린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 노대형/발행인: 김진민/편집장: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창간: 2542년(서기 1998년) 8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87호

“어제 반찬 중에 오이 장아찌는 너무 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제 30도가 넘는 날씨에 반찬들이 윗까와 걱정했는데 모두 괜찮아 다행이야. 최보살 제트카로 움직이는 럭셔리 서비스 덕분이야. 하하”
 새벽5시 노원구 상계동 사천왕사 법당. 무우채를 넣고, 손끝에 별칭 ‘고추장’을 묻혀 기어 나뭇을 버무리던 6명의 보살들이 분주하게 손을 놀리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마을 수재민들을 위해 반찬봉사에 나선 불교자 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자들.
 이번 자원봉사활동에 남을 줄이라는 즐거움 외에 또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8월10일 노원마을 수해복구현장에 참여했다가 수재민들의 급식을 위해 비지빔을 흘리고 있는 진성교회 젊은 목사부부를 돕는데 나선 것이다.
 처음에는 목사 부인의 거부와 불교자원봉사



자들이 굳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도와야 하는지는 반대도 있었다. 그러나 불교자원봉사자들은 이내 하루아침에 가진 것 모두를 잃은 수재민 앞에서 종교적 이견 또한 사치일 뿐이라 생각해 목사부인을 설득. 매일 4백50명분의 반찬을 만들어 진성교회에 배달했다. 또 불교자원봉사자들은 지난 5월부터 과고다공인과 여의도 보현의 집에서 무료급식을 해온 ‘숙련된 솜씨’답게 목사부와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수재민들의 급식을 도왔다. 종교의 벽을 허물고 목사부와 힘을 합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자원봉사자들의 훈훈한 광경을 교회로 찾은 신자들에게는 목사님의 한마디 설교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
 애초 3일간 반찬급식을 도울 계획이었으나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1주일 동안 반찬 봉사를 마친 불교자원봉사자들은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상덕스님(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을 뵈고 인사드리겠습니다”라는 목사부부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동안의 피로를 씻어내고 출가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은 신자들이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불교자원봉사자들에게는 어느새 종교를 초월한 작은 사랑이 용이리를 들고 있었다.
 (이희명화 명예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a.com

도박승 검찰구속... 출가정신·개혁의지 실종

“승단의 自淨계기 삼자”

승·제가단체, 참회·엄중 문책·사찰운영투명 등 촉구

“진정한 호법은 승단 내부의 자정노력, 즉 도덕성 회복에 있다.”
 13일 조계종 총회위원 J스님을 비롯한 스님 4명이 거역의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일부 스님들이 불구속 입건되거나 수배된 것과 관련 불교계에서는 승단의 정정승풍 회복을 촉구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검찰의 ‘도박승 검거’ 사실이 공개되자 교계의 20여 단체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사부대중의 참회와 엄중한 수사, 승단의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승풍을 정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사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유명 무실한 사찰운영위원회를 분명하게 실시할 것도 강도 높게 촉구했으며 삼보장재보호위원회의 구성

도 제안했다.
 불교인권위를 비롯한 9개 단체의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 동연합, 조계사창년회, 제주불교도보대책위원회, 한국제가불지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사설사암연합회,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 한국대학생불교

연합회 등이 잇달아 성명을 내놓았다. 또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등 25명의 제가불자들도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전불련과 경불련은 27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9개단체는 14일 가장 먼저 참회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

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총무원도 참회문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과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사무처장 도관스님이 19일 까지 6일간 조계사 법당 앞에서 참회단식을 했다.
 불교계의 참회와 자정을 촉구한 각 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의 의도적인 기피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분명한 수사 경위와 진상의 공개등을 요구했다.

또 대부분의 성명에서 조계종 총무원에도 일방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점차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6·18면>
 임연태·도필선 기자
 (ytlim@buddhapa.com)



◇고불총림 무차선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잠성 백암사에서 열렸다. ‘고승대법회’와 ‘한국선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조사선을 재조명한 무차선회에는 5천여 불자들이 성황을 이뤘다. <고영배 기자>

조계종 133회 총회
 9월 7~11일
 조계종 제133회 임시총회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본사주지 선거법 개정 문제를 비롯한 21건의 중립 재개정안과 남북교류협약의 기구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임직원 수재의연금 전달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은 1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수재의연금 74만원을 전달했다. 또 현대불교 명예기자 이란씨가 이끄는 여여회가 기탁한 성금 28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임연태 기자

“선불교로 21세기 좌표제시”

무차선회 77년만에 재현...5천불자 참여
 고승법회·한국선 국제학술대회 열려

대통령은 허경만 전남도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21세기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열리게 된 이번 무차선회가 인류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새로운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흘간 진행된 ‘고불총림 무차선회’는 비록 교학연구회나 나무림의 후원으로 전세계에 인터넷 생중계됐다. <관련기사 9·12·13면>
 장성·김정은 기자
 (jekim@buddhapa.com)

폭우 피해사찰 150여곳으로

각종 단 봉사자 파견등 수해복구 부심

7일부터 이날 중순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의 1백50여 사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사찰은 복구를 위해 비지빔을 흘리고 있으나 여전히 장비와 인력 재정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19일 현재까지 폭탄내 사찰 1백30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교구별로는 직할 사찰 22곳, 법주사 지역 11개사찰, 수덕사 지역 9개사찰, 적지사 지역 24곳, 화엄사 지역 9곳, 봉선사 지역 19곳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고종도 전국 24개 사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수해 지역에 연인원 1천1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했다.
 임연태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9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여주 신록사, 고당사지, 목아 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불상을 비롯 회화·공예·민속품 등이 전시된 목아박물관(경장 박찬수에서 하나의 나무가 불상이 되기까지의 제작과정을 알아봅니다.
 탑을 구상한 벽돌의 두뇌가 수려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다동전탑(보물 제226호)과 남한강가의 바위절벽에 위치한 청자 감월전(고묘전), 나옹화상의 입적처로 유명한 여주 신록사와 부도(국보 제4호)를 비롯해 안동에서 해진탑(보물 제7호) 등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고당사지도 답사합니다.
9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신록사·목아박물관·고당사지’
 ○출발: 9월13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비: 3만원(점심 제공)
 ○안내: 구본만 학예연구관(여주군청 향토사료관)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일약품

도서출판 **새문**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한빌딩·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역사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랑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 - <한국일보> 4.15.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달인 끝 있었다 - <뉴스피플> 4.23.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 - <경향신문> 4.17.
 죽을 또한 자연 이념/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필자 서화담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 - <현대불교신문> 4.8.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 - <서울신문> 5.5.

· 신국판 | 304쪽 | 값 7,000원
 · 저자: 맹랑자

지금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①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